

## 디지털 방송 선포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역사적인 디지털 방송시대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진행된 경과보고와 영상물,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방송시대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술의 혁명, 방송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디지털 방송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매우 큼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국민경제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고화질 HDTV는 올림픽 경기를 훨씬 더 실감나고 감동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선수들의 땀방울과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휴대전화나 PDA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큼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쌍방향 서비스는 시청자들이 방송의 주인임을 실감하게 해줄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크게 다른 살아 있는 TV, 생각하는 TV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디지털 방송시대를 우리의 기술로 열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방송을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삼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핵심부품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로열티를 받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에서 이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우리 경제에 디지털 방송이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07년까지 방송과 관련 산업 분야에 모두 29조원에 이르는 시장이 창출될 것입니다. 세계 HDTV 수요가 올 한 해에만 1천만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내수시장과 수출산업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도 매우 클 것입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가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디지털 TV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디지털 방송시대의 개막과 함께 또 하나의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한 단계 높인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디지털 방송의 전송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이견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대화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를 찾아냈습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과정이 다른 분야의 갈등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방송인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디지털 방송을 ‘꿈의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기술과 하드웨어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찬 내용으로 채워야 합니다. 디지털 방송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갑시다.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과 제품, 여기에 훌륭한 프로그램이 합쳐진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미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이 우리의 역량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디지털 코리아, 문화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디지털 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